

‘퍼시픽파트너십’ 한국 해군 인도적 지원에 감사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 서한
학교 신축·주민 건강검진 등 진행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이 현지에서 인도적 지원활동에 나선 우리나라 해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27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두

테르테 부통령은 지난 24일 이상화 대사를 만나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선 한국 해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인력과 장비를 수송한 천자봉함(LST-II) 함장인 박문권 해군중령에게 감사서한을 보냈다.

한국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는 다

국적 재난대응 연합훈련인 ‘2023 퍼시픽파트너십’에 상륙함인 천자봉함을 파견했다.

한국은 2007년부터 의무요원 위주로 이 훈련에 참가해 왔다. 올해는 최초로 해군 함정과 의무병과 공병, 민간 전문인력 등 민·군 합동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파견했다.

천자봉함에는 공병·수중 건설장비 20여 대와 건설물자 40여 종이 탑재됐다.

천자봉함은 지난 21일 라우니언주의 산페르난도항에 입항했으며, 지원단은 인근 지역에서 학교 신축 및 시설 보수, 주민 건강검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단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서울대 수의대학 교수 등도 참여 중이다. 천자봉함은 훈련기간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일대에서 인도적 지원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세

“북 실패로 끝났지만 여전히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 안보리...중·러 반대 ‘빈손’ 종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미국 등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과 북한대사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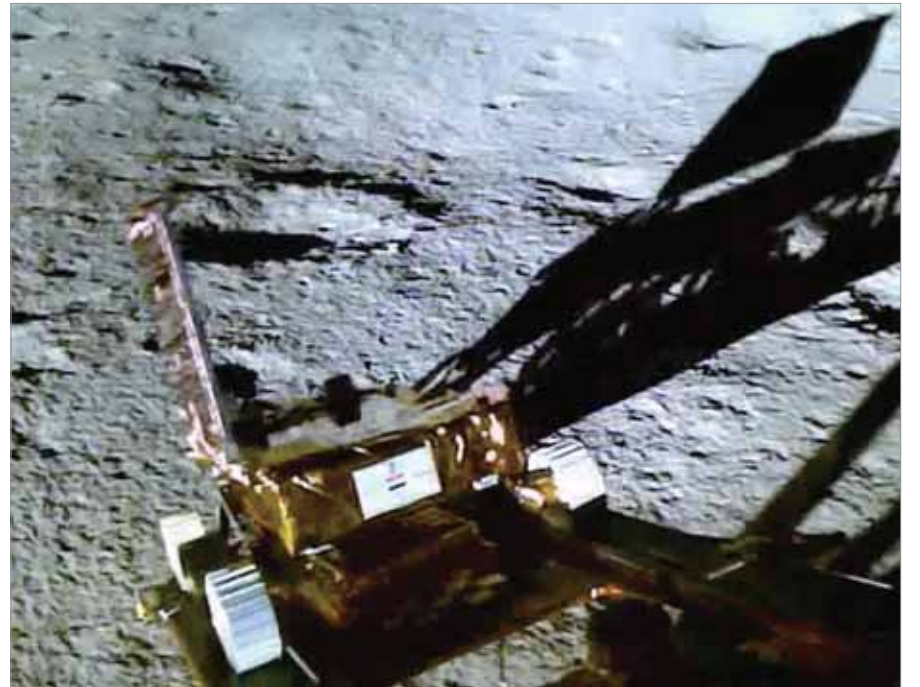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대사는 북한의 정찰위성 탑재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끝났지만 여전히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핵 개발은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편집증’이라고 규정된 뒤 “북한의 무기는 북한 주민들을 잔인하게 억압해 개발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북한이 오는 10월 정찰위성 탑재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것이

라는 방침을 밝혔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이 같은 미사일 발사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일본과 알바니아 등 대부분의 이사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황준국 유엔대사는 지난달 북한이 핵 무력을 과시한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황 대사는 한국과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핵 개발에 나섰다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이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게 된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연세



달 표면에서 이동하는 ‘찬드라얀 3호’ 인도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에서 나온 탐사로봇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달 표면에서 이동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는 전날부터 탐사로봇을 활용해 달 표면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연세

대만 외교수장 “중, 러시아 교훈 삼아 대만 침공 능력 강화할 것”

“가능성 엄중 대처” 언론 인터뷰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 삼아 대만 침공 준비에 나설 것이라는 대만 외교수장의 분석이 나왔다.

27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우자오세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지난 25일 보도된 라트비아 인터넷매체인 델피(Delfi.lv)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부장은 중국 내부의 정책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중국이 우크라이나전쟁 국면에서 러시아가 겪은 좌절을 어떻게 평가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반드시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좌절과 실패를 교훈 삼아 대만 침공을 위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 부장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만이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부장은 대만 당국이 중국 군용기 및 군함의 대만해협 중간선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을 예의주시하고 군 개혁과 무기 구매 등의 투자를 강화해 비대칭 작전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은 자기방어 결심이 승리를 쟁취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중국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부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독재국가 간의 협력이 이전보다 더욱 심화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을 결정한 유엔총회 결의안 2758호를 왜곡해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고 대만 사무가 중국 내정이라면서 대만해협엔 이른바 ‘국제수역’이 없다는 ‘내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중국이 제1도련선(일본 쿠릴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몰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넘어 동중국해, 남중국해, 태평양 및 인도양, 아프리카 등지로 확장하려고 기도하고 있어 주변국과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중국의 무모한 행위로 인한 지정학적 군사충돌 가능성 및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 부장은 지적했다. 우 부장은 전 세계 화물 물동량의 50%가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가운데 대만이 전 세계 반도체 제조의 60%, 첨단 반도체의 세계 점유율 92%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면 반드시 전 세계 경제 공급망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



2023 KAIF

Logistics Forum

한·아세안* 국제 군수 포럼(KAIF : Korea ASEAN* International Forum on Logistics)

기간 2023. 9. 18.(월) ~ 23.(토)

장소 육군본부, 군수사령부, KAIST 등

참가국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튀르키예, UAE, 미국, 베트남,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구분	9.19.(화)	9.20.(수)	9.21.(목)
주제	글로벌 비전통적 위협과 국제적 공조방안	전력지원체계 및 후속 군수지원 발전방안	첨단기술을 적용한 전력지원체계 발전
장소	육군본부 대회의실	군수사령부 대회의실	KAIST 정근모 컨퍼런스 홀
주관	육군 참모총장	육군 군수사령관	육군 군수참모부장